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약간 흐렸으나 맑음

제목 :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나  
나는 어제와 아버지와 동생이랑  
자전거를 탔다.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싶었지만 바로 탈 수는 없었다.  
오냐하면 숙제도 많고 아버지는  
회사에 개냥기 때문이다. 7시에 아침  
점점심을 먹고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0분 숙제 20분 휴식을 반복하였다.  
중간에 간식으로 핫도그를 먹었다.  
4시가 되자 아버지가 오셔서 라면을  
먹고 자전거를 탔다. 안양천에서  
신도림까지 약 30분 동안 타고  
갔다. 우리는 자전거를 세워 놓고  
디큐브 백화점에서 공연을 보았다.  
엄마께서 재능기부 나눔 봉사단에서  
주최하는 음악회라고 하셨다. 나도  
재능이 있다면 가르쳐 주고 싶다.  
7시에 왔던 길로 다시 돌아와  
내가 너무나 먹고 싶었던 설농탕  
을 먹었다. 그리고 8시에 집 앞  
에 있는 커피숍에서 초코 라떼를  
마시며 어린이 주간지 신문을 읽었다.

도원이의 일상아카이브 끝